

개소세·프로모션 효과... 11월 車 내수실적 회복세

현대차, 전년동기비 판매 0.4% ↑
기아차, RV 부진 영향 0.7% 감소
쌍용차, 17.8% 증가... 티볼리 효과
르노삼성, SM6 업고 1.3% 성장
한국지엠, 말리부 부진 19.9% ↓



국내 완성차 업계 로고.

국내 완성차 업계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와 프로모션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판매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1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총 6만4131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가 1만191대(하이브리드 2577대 포함) 판매되며 국내 시장 판매를 이끌었고, 이어 아반떼가 6243대, 쏘나타가 5335대(하이브리드 426대 포함) 등 총 2만3544대가 팔렸다.

RV는 싼타페가 9001대, 코나 5558대(EV모델 2906대 포함), 투싼 4280대, 맥스 크루즈 19대 등 전년 동월 대비 38.1%가 증가한 총 1만9018대 판매를 기록했다

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가 2889대, G70가 1550대, G90(EQ900 333대 포함)가 882대 판매되는 등 총 5321대가 판매됐다. 지난 달 말 출시한 G90는 2주간의 사전 계약 기간에만 6713대의 실적을 달성하며, 연말연시 본격적인 인사시즌을 앞두고 큰 기대를 모았다.

기아차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승용 모델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RV 차종 판매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7% 줄어든 4만 8700대를 판매했다. K시리즈를 앞세운 승용 모델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만 2546대가 판매됐다.



현대차 그랜저G

RV 모델 중에서는 카니발이 전년 대비 16.2% 증가한 6571대로 선전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기아차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반면 그 외 다른 RV 모델들의 판매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RV 모델은 전년 대비 15.5% 감소한 2만 475대가 판매됐다.

쌍용차는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

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쌍용차는 지난달 1만330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전년 동기(8769대) 대비 17.8% 늘었다. 차종별로 보면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비중이 높다. 특히 쌍용차 역대 픽업 모델 중 최대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는 두 달 연속 4000대 판매를 돌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3.8% 증가하는 등

내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티볼리와 G4 렉스턴은 각각 4254대, 1423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르노삼성도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8407대 판매하며 전년 동기(8302대) 대비 1.3% 성장했다. SM6는 지난달 1962대가 팔렸다. 최상위 트림이 전체 판매 중 6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0월 출시한 SM6 프라임 모델이 544대 판매되며, 전월 대비 6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QM6는 전년 동기 대비 30.1% 늘어난 3749대가 팔리며, 2개월 연속 월간 판매량 3000대를 돌파했다.

반면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8294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만349대) 대비 19.9% 감소했다. 한국지엠의 내수실적을 견인하는 주력 모델인 스파크가 3965대 팔리며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세를 기록해 감소폭을 줄였다. 한국지엠이 수입·판매 중인 중형급SUV 이퀴녹스는 245대가 판매돼 전월 대비 29.6% 늘었다. 다만 인기 차종인 중형세단 말리부는 1653대 판매돼 전년동월 대비 24.9% 감소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제네시스 G70, 美 전문紙서 ‘올해의 차’

세계 최고 車 전문지 모터트렌드 BMW3시리즈 등 19개 차종 비교

제네시스 ‘G70’이 세계 최고 권위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인 미국 모터트렌드가 선정한 ‘2019 올해의 차’에 등극했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모터트렌드는 최근 발간한 2019년 1월호에서 ‘스타가 태어났다(A Star is born)’는 제목과 함께 ‘한국의 신생 럭셔리 브랜드가 중앙 무대로 강력하게 파고들었다’는 문구의 커버 스토리 기사를 게재하며 G70 올해의 차 선정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번 올해의 차 평가는 제네시스 G70, BMW 3시리즈 등 총 19개 차종을 대상으로 비교 테스트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모터트렌드는 “3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 현대차는 4995달러의 낮은 가격표에 조르제토 주지아로(현대차 포니를 디자인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입은 액셀을 미국에 출시했다”며 “당시 미국인들은 ‘현대’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

야 할 지도 몰랐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제네시스는 BMW 3시리즈의 강력한 대항마 G70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모터트렌드 평가단은 제네시스 G70에 대해 다양한 찬사를 보냈다. 주행 테스트인 크리스 윌튼은 “G70은 다루기 쉬운 야수와 같다. 이 차는 인피니티 G35보다 고급스럽고 벤츠 C클래스보다 날카로우며, 아우디 A4보다 훨씬 기민하다”고 평가했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디자인 평가도 이어졌다. 크리스 테오도어 객원 평가위원은 “마치 메르세데스-벤츠처럼 뛰어난 인테리어”라고 평했다.

/양성문 기자

첨단 안전기술 탑재 ‘2019년형 K7’ 출시

기아자동차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기본 제공
세제 혜택시 3053만~3969만원

기아자동차가 3일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19년형 ‘K7’을 출시했다

2019년형 K7은 고속도로 주행보조(HDA)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를 가솔린·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 이상에 기본으로 적용했다. HDA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설정 주행 시 자동 활성화되는 기능으로 앞차와의 거리 유지, 차로 유지, 도로별 제한속도에 따른 주행 설정 속도 자동 변경 등의 기능이 포함된 첨단 주행안전 기술이다. 장거리 운전자의 피로를 경감시켜준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같은 안전장치도 적용됐다. 현대판 무

기아차 ‘2019년형 K7’



선충전 시스템을 가솔린·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적용했고, 내비게이션에서 고화질 DMB를 수신할 수 있다.

디젤 2.2 모델에는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사용했다. SCR을 추가로 장착함에 따라 2018년형보다 가격이 100만원 이상 올랐다.

2019년형 K7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인하와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가솔린 2.4 모델 3053만~3329만원, 가솔린 3.0 모델 3303만~3545만원, 가솔린 3.3 모델 3709만~3969만원이다. 디젤 2.2 모델은 3478만~3724만원, 하이브리드 모델 3532만~3952만원, LPI 모델 2625만~336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양성문 기자

한화방산 4사, 중동·북아프리카 개척 속도

이집트 ‘에덱스 2018’ 참가
맞춤형 해안포 방어체계 선보



한화 전시부스

한화방산계열사 4사(㈜한화·한화시스템·한화지상방산·한화디펜스)가 중동, 북아프리카 방산시장 개척에 나섰다 3일 밝혔다.

한화방산계열사 4사는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되는 방산 전시회 ‘에덱스 2018(EDEX 2018)’에 통합 전시관을 열고 방산제품을 선보인다.

에덱스2018은 이집트 정부가 후원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올해 전시회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 300여 업체가 참가한다.

한화는 한국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전시

부스(140㎡)를 마련했다. 국토 상당 부분이 해안선인 이집트의 지형과 홍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해안포 방어체계’를 선보였다.

/정연우 기자

현대글로벌비스, 중고차 경매출품 업계 첫 100만대 돌파

현대글로벌비스의 중고차 경매 누적 출품 대수가 업계 최초로 100만대를 돌파했다. 첫 경매를 시행한 지난 2001년 2월 이후 17년 9개월만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중고차 거래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11월 30일까지 총 누적 중고차 경매 출품 대수가 100만382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경매는 차량을 경매장에 출품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매업체에게 판매하는 도매 유통 서비스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경기 분당과 시화, 경남 양산의 경매장에서 각각 매주 1회씩 자동차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경매 첫 해 분당경매장에서 1만8대의 중고차를 거래한 현대글로벌비스는 시화경매장을 새로 연 2008년까지 25만대 이상을 경매로 유통시켰다. 2012년 영남권 최



지난달 30일 100만번째로 중고차가 출품된 현대글로벌비스 시화경매장에서 매매업체 회원들이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초의 대규모 경매장인 양산경매장을 개장해 누적 출품 대수 50만대를 기록한 후 마침내 지난 11월 100만대를 넘어섰다. 2018년 기준으로 평균 회당 591대, 월간 7687대의 중고차가 출품돼 11월까지 8만 4558대가 거래됐다. 올해 말까지 전년보

다 3000여대 증가한 9만2000여대의 중고차가 출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버스 등 상용차를 포함해 다양한 차종의 거래가 이뤄져 출품인과 도매업체 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중고차 경매 사업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량 소유주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객관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량을 매각하기 때문에 판매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있고, 경매 참여 업체는 현대글로벌비스의 정밀 성능점검을 마친 양질의 중고차를 대량으로 낙찰받을 수 있어 원활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연우 기자 yw964@